



[2023 수원서베이]

수원시 공원녹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

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eykim@suwon.re.kr
김채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chaeyoung@suwon.re.kr

요약

I 수원시민의 공원녹지 만족도

- 공원녹지에 대체로 만족(55.1%)하나 지역별 편차 발생
- 장안구, 영통구의 공원녹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팔달구는 상대적으로 낮음

II 수원시민의 공원녹지 이용 특성

- 수원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녹지 유형은 근린공원·선형산책로
- 수원시민의 73.6%, 공원녹지 1개월에 1~3회 이상 이용
- 장안구의 공원녹지 이용빈도가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에서 이용빈도 증가
-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명소는 광교호수공원과 수원화성 선정
- 18세 이상 수원시민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참여경험은 2.6%

정책제언

I 공원녹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 발굴

- 공원녹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 및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발굴

II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이용빈도가 높은 선형산책로를 새로운 공원유형으로 제안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
-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여가·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확대 필요

III 공원녹지를 여가·관광 및 환경교육 자원으로 연계

- 광교호수공원 등 수원시 내 매력적인 공간을 발굴하여 여가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
- 환경교육도시 수원, 공원과 연계한 성인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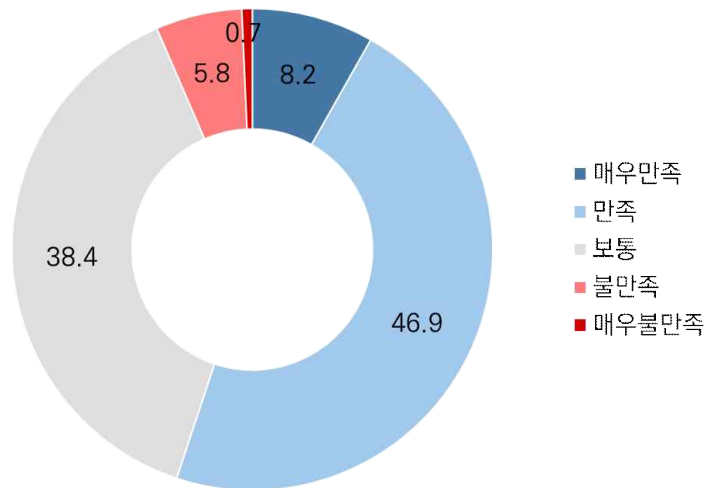
1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공원녹지 만족도는?

□ 수원시민 중 55.1%가 공원녹지에 만족하나 지역별 편차 발생

- 수원시 공원녹지에 대해 ‘매우만족 8.2%’, ‘만족 46.9%’, ‘보통 38.4%’, ‘불만족 5.8%’, ‘매우불만족 0.7%’
- [지역별] 공원녹지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‘장안구’(62.1%)와 ‘영통구’(61.1%)로 나타났으며, ‘권선구’(56.1%), ‘팔달구’(36.8%) 순으로 조사됨
 - 공원녹지 만족도에 대해 매우만족하는 비율은 ‘영통구’가 1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[연령별] 공원녹지 만족도는 ‘50대’(58.6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‘70대 이상’(58.1%)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
 - ‘30대’(55.3%), ‘18-29세’(54.6%), ‘60대’(52.8%), ‘40대’(51.8%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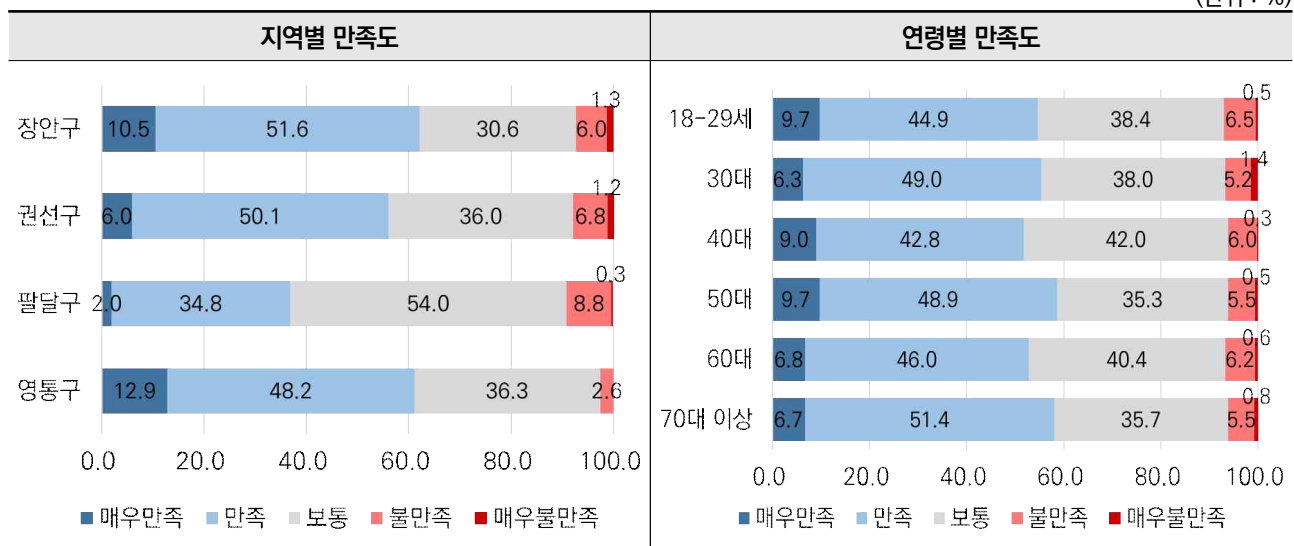
< 공원녹지 만족도 >

(단위 : %)



< 지역·연령별 만족도 >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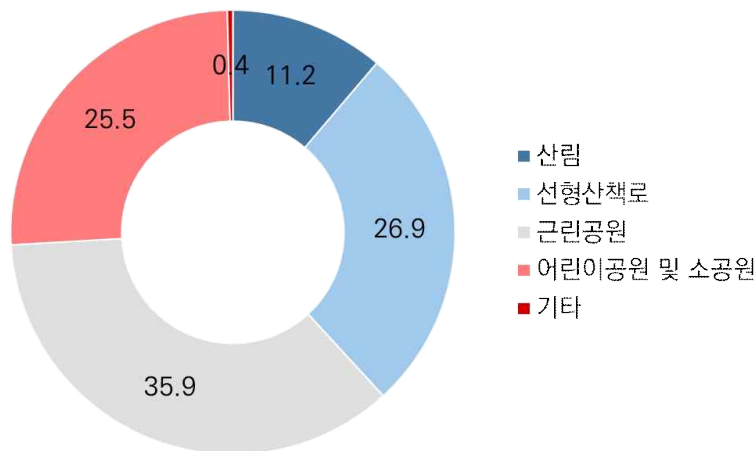
2 수원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녹지 유형 및 이용빈도는?

□ 수원시민은 광고호수공원, 만석공원 등과 같은 ‘근린공원’(35.9%)과 등산로, 하천변 산책로와 같은 ‘선형산책로’(26.9%)를 주로 이용함

- 그 밖에 ‘어린이공원 및 소공원’(25.5%)과 광고산, 칠보산 등 ‘산림’(11.2%)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‘기타’(0.4%)로는 학교 등이 조사됨
- [지역별] 장안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‘선형산책로’(28.9%)와 ‘근린공원’(28.5%)의 이용빈도가 높음. 권선구는 ‘근린공원’(33.6%)과 ‘어린이공원 및 소공원’(33.6%)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팔달구는 ‘어린이공원 및 소공원’(34.1%)과 ‘근린공원’(30.8%)이 높은 비중을 보임. 영통구의 경우 ‘근린공원’(48.0%)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남
- [연령별] ‘어린이공원 및 소공원’(34.9%)의 유형을 주로 이용하는 ‘70대 이상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‘근린공원’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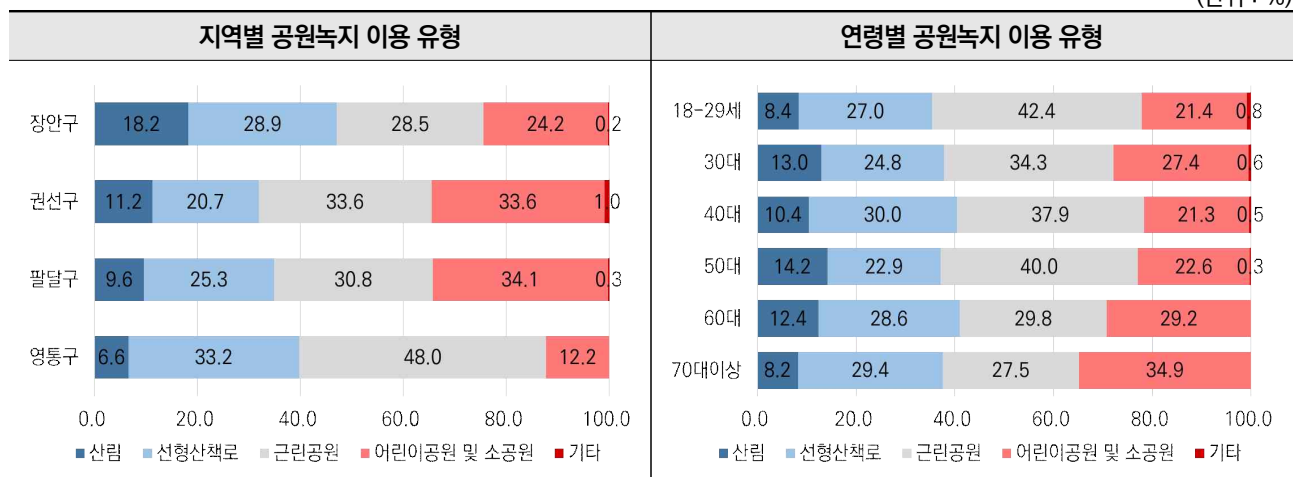
< 공원녹지 이용 유형 >

(단위 : %)



< 지역·연령별 공원녹지 이용 유형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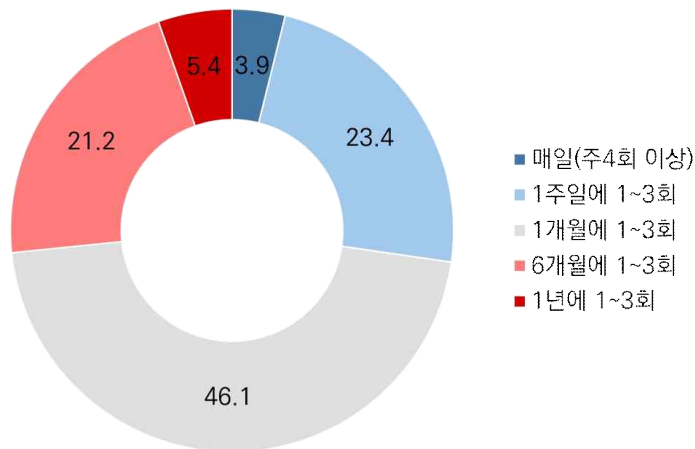


□ 수원시 공원녹지 이용빈도 조사 결과, 시민 73.4%가 1개월에 1~3회 이상 이용

- 공원녹지 이용빈도는 ‘1개월에 1~3회’(46.1%)와 ‘1주일에 1~3회’(23.4%)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‘6개월에 1~3회’(21.2%), ‘1년에 1~3회’(5.4%), ‘매일’(3.9%) 순으로 조사됨
- [지역별] 지역과 상관없이 ‘1개월에 1~3회’를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장안구의 경우 ‘1주일에 1~3회’(28.1%)와 ‘매일’(7.9%)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. 권선구와 팔달구의 경우 ‘1년에 1~3회’와 같이 공원녹지 이용빈도가 낮은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
- [연령별] ‘60대’와 ‘70대 이상’에서 ‘매일’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8.1%와 12.9%로 높게 나타났으며,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‘1개월에 1~3회’ 이용빈도를 갖는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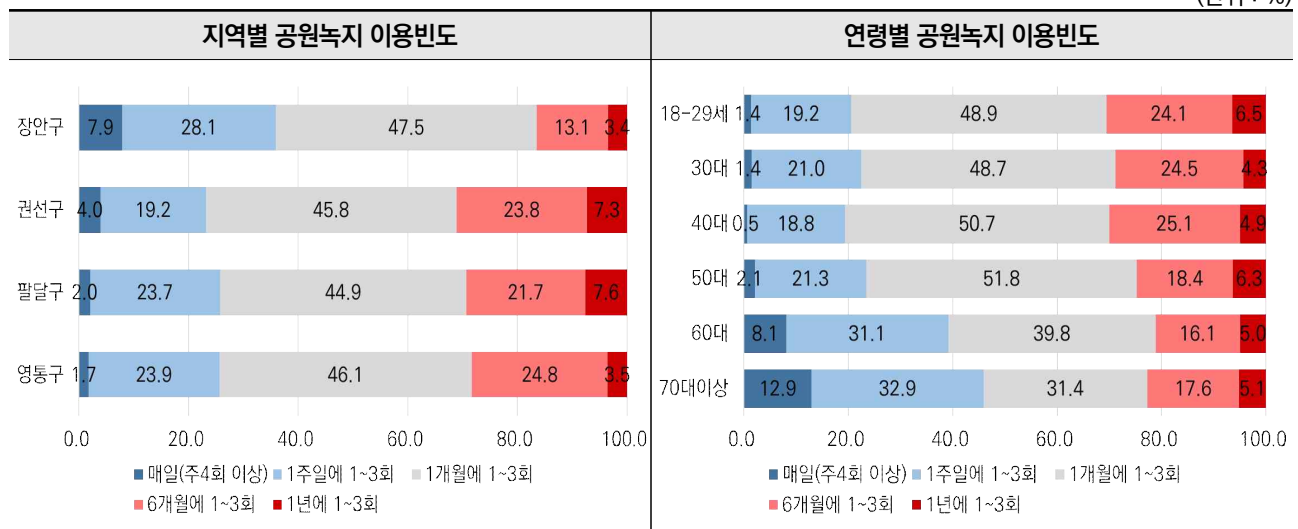
< 공원녹지 이용빈도 >

(단위 : %)



< 지역·연령별 공원녹지 이용빈도 >

(단위 : %)



- 공원녹지에 만족하는 시민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63.8%(평균 61.4%)로 높게 나타났으며, 1개월에 1~3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은 82%(평균 73.4%)로 만족도가 높은 시민이 공원녹지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[지역별] 만족도가 높은 장안구와 영통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산림, 선행산책로의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, 팔달구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이용비율이 50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[연령별] 매일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시민 중 79.7%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, 1주일에 1~3회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

3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명소는?

-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명소에 대한 응답으로 총1,841명이 104개의 장소 제시.
가장 매력적인 명소로는 ‘광교호수공원’(29.0%), ‘수원화성’(22.2%) 선정
- 그 다음으로는 ‘만석공원’(4.3%), ‘광교산’(4.2%), ‘수원행궁’(4.0%), ‘영흥수목원’(2.4%), ‘방화수류정’(2.0%), ‘일월수목원’(1.9%) 순으로 나타남
- 수원시 내 매력적인 명소로 ‘광교호수공원’, ‘만석공원’, ‘서호공원’ 등 다수의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에 개장한 ‘영흥수목원’과 ‘일월수목원’이 매력적인 명소 상위에 포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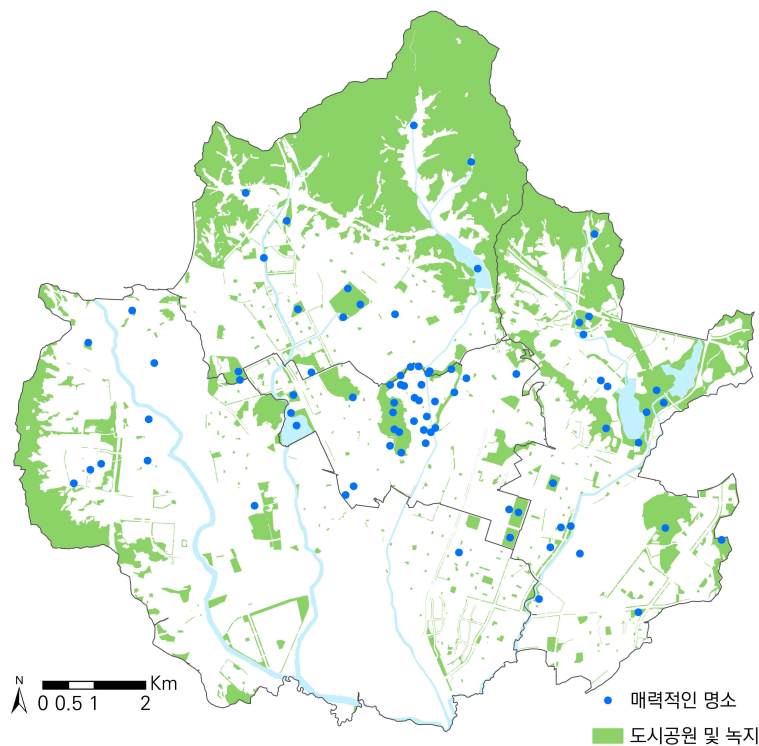
< 수원시 매력적인 명소 >

순위	수원시 매력적인 명소 상위 12
1	광교호수공원
2	수원화성
3	만석공원
4	광교산
5	수원행궁
6	영흥수목원
7	방화수류정(동북각루)
8	일월수목원
9	행리단길
10	광교저수지
11	플라잉수원
12	팔달산

*응답 중 수원 외 지역 및 민간운영시설 제외

- 지역별 매력적인 명소 분포 비율은 ‘장안구 19.5%’, ‘권선구 11.5%’, ‘팔달구 43.7%’, ‘영통구 25.3%’
- 유형별로 광교호수공원, 광교산 등의 ‘산/공원/호수/농장’과 같은 자연지역이 51.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수원화성, 수원행궁, 방화수류정 등 ‘유적지/문화재’ 항목은 약 30.7%로 나타남

< 매력적인 명소 분포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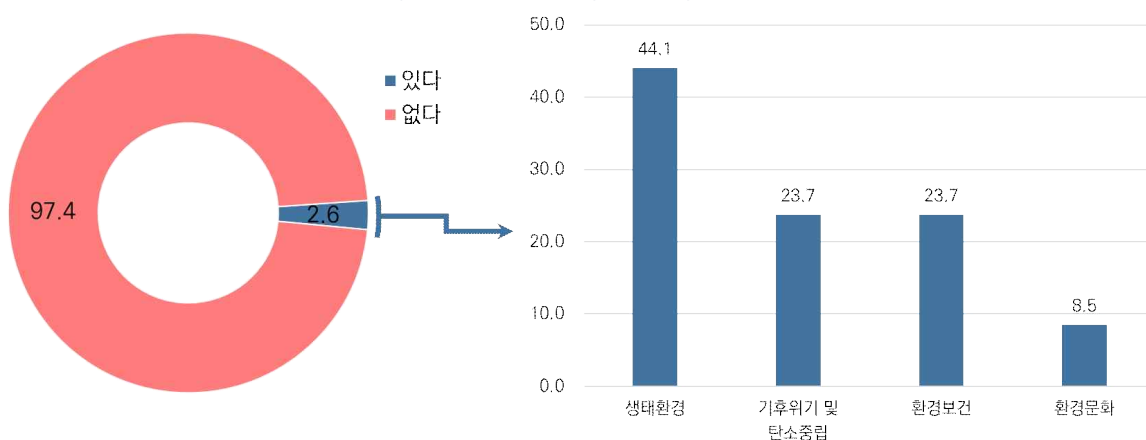
4 수원시민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참여도는?

□ 수원시민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참여 경험은 2.6%로 조사됨

-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분야로는 '생태환경'이 44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'기후위기 및 탄소중립'(23.7%), '환경보건'(23.7%), '환경문화'(8.5%) 순임
- '생태환경'은 40대(13.6%)가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, '기후위기 및 탄소중립'은 50대(10.2%), '환경보건'은 30대(11.9%), '환경문화'는 40~50대(3.4%)가 가장 많이 참여함

<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참여 경험 >

(단위 : %)



5 정책제언

□ 서베이 조사결과와 수원시 도시공원 면적을 비교한 결과, 도시공원 면적이 클수록 공원녹지 만족도가 높은 경향은 있으나 일치하지 않음.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 필요

- 수원시 도시공원 면적은 13.37km², 전체 면적 대비 11.03%를 차지. 공원 조성 비율은 ‘장안구 6.8%’, ‘권선구 9.4%’, ‘팔달구 13.0%’, ‘영통구 18.0%’이며, 1인당 공원면적은 ‘장안구 8.1m²’, ‘권선구 11.9m²’, ‘팔달구 8.0m²’, ‘영통구 13.4m²’임(2023년 12월 기준)
- 장안구는 공원 조성 비율은 낮으나 공원녹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장안구 주민의 산림 및 선형 산책로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광고산 등산로 및 산책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팔달구는 전체 면적 대비 공원 비율이 높은 편이나 1인당 공원면적과 만족도는 모두 낮게 나타남. 이는 팔달구 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
- 권선구는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은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로의 접근성, 편의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
- 영통구는 도시공원 조성면적 및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원녹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

□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지표 발굴 및 모니터링 필요

- 수원시 내 산림, 하천, 도시공원, 녹지뿐만 아니라 수목원 및 손바닥정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그린 인프라 지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< 도시공원 현황에 따른 공원녹지 만족도 >

구분	도시공원 현황(m ²)	도시공원 비율(%)	1인당 공원면적(m ²)	공원녹지 만족도(%)
장안구	2,265,751.2	6.8	8.1	62.1
권선구	4,458,035.5	9.4	11.9	56.1
팔달구	1,667,289.0	13.0	8.0	36.8
영통구	4,982,786.8	18.0	13.4	61.1

2023.12월 기준

□ 이용빈도가 높은 선형산책로를 새로운 공원유형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고 이에 적절한 공원서비스 제공 필요

- 수원시민의 26.9%가 이용하는 선형산책로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내 공원 유형에 없어 신규 지정 및 적절한 관리 필요

▣ **공원녹지 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가·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 필요**

-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는 신체적·사회적·정신적 측면에서 건강증진 효과에 기여

▣ **매력적인 공간의 발굴 및 공유로 수원시민의 여가·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 가능**

- 수원시민이 제시한 매력적인 공간 중에 51.3%가 공원녹지 등 자연지역에 해당. 도시공원을 일상 속 여가활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
-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

▣ **수원시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경험은 2.6%이나 국가환경교육센터(2020)에서 제시한 경기도의 인구대비 환경학습자 비율이 1.24%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임**

- 국가환경교육센터 조사는 유아 및 아동, 청소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원서베이 결과 비교 시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교육이 추진 중인 것으로 해석

▣ **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구환경, 자연환경, 생활환경, 환경문화 등 다양한 환경교육 주제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강의, 체험, 조사·관찰, 실습 등 교육 방법의 다양성 확보 필요**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